

##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 스토리 부문」 종합 심사평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 스토리 부문」에 응모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심사위원회는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제작 가능성, 분야 확장성을 기준으로 장시간 세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사업화 희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에서는 작품별 심도 있는 담론을 공유·토의하고 수상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전원은 심사 과정에서 소중한 창작물을 통해 작가님들의 열정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소재와 설정, 흡인력 있는 서사 구조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좋은 창작물을 접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표절이 큰 논란이 된바, 접수된 작품을 보호하고 공정한 심사를 운영하고자 올해부터 표절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작품은 창의·창작의 영역인 가상의 인물/설정/줄거리 등이 기성 작품과 유사한 점이 식별되었습니다. 또한 희망 사업화 분야가 ‘영상’에 편중되고, 장르 또한 ‘역사/시대물’이 많아 다른 분야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장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대상 수상작은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천개의 혀>, <기억도깨비>, <지나가던 선비>, <4구역>이 선정, 우수상에는 <금주령(禁酒令)>, <대기만성 기린고등학교>, <심연심서>, <Dear. My Laika>, <북촌 로맨스>, <향장공녀 해윤슬>, <인희 아파트>, <봉보, 왕의 유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 청년작가상에는 <철수 삼촌>, <도무지 낚지 않는 이야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천개의 혀>는 흩어져 있는 단서와 인물들을 연결하는 구성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추진력이 탁월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고, 시각적 효과도 담아낼 수 있는 설정이라, 웹툰,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기억도깨비〉는 삶에 치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특히 작중 기억도깨비는 우리의 삶과 동반하면서 과거를 품고 있는 존재로서, 잊혀가는 삶의 지표로 다가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추구하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선비〉는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영웅 설화로 발전해 나가는 아이디어가 신선했습니다. 또한 문장력과 어휘력, 대사 능력이 뛰어나고, 서사를 끌고 나가는 솜씨가 매끄러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좋았습니다. 한국형 히어로물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작품입니다.

〈4구역〉은 코로나 시대의 상이 잘 반영되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과 조연들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잘 구축하였고, 캐릭터들이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돌진하는 플롯이 긴장감과 극적 재미를 극대화합니다. 영상, 웹툰 등 확장성이 폭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령(禁酒令)〉은 영조가 실제 단행한 ‘금주령’이라는 익숙한 역사적 사실, 실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 인물과 가상의 인물 설정이 잘 어우러져, 전체적인 균형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출판뿐만 아니라 영상화에 대한 강점도 보입니다.

〈대기만성 기린고등학교〉는 학교를 배경으로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잘 전달되고, 사건들과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문장력과 스토리 역량이 우수했습니다. 인물묘사와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사건 구성력이 능숙하여 영상으로 제작된다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심연심서〉는 전체적으로 설정과 소재가 흥미로웠고, 하나의 인물에 대해 다중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캐릭터가 극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드라마 외에도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Dear. My Laika〉는 SF 장르를 뮤지컬 형태의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과학적인 설정과 함께, 꿈과 기억, 그리고 감정이 극을 지배합니다. 보통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각종 극중 장치를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훌륭합니다.

〈북촌 로맨스〉는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복잡하지 않게 그려 내면서도, 침착하게 작중 목표를 향해 극을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화되어, 현재에도 한옥마을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이 명소 중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향장공녀 해윤슬〉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소재가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한 조사와 이에 기반한 사건 구성이 안정감 있었습니다. 영상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K-뷰티를 통해 한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희 아파트〉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 결말까지 사건을 해결하고 몰아나가는 이야기의 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불화, 이웃 간 갈등 등 현대에 고착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의성을 지닌 작품이었습니다.

〈봉보, 왕의 유모〉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작중 시점이 유모라는 점이 신선했고,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익숙하지만, 그 사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점이 새로웠습니다. 시장성과 제작 가능성, 장르 확장성이 뛰어난 스토리입니다.

〈철수 삼촌〉은 아이러니한 설정을 코믹 드라마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이 가미되면서 극중 상황이 더욱 긴장감 넘치게 확대되어 재미를 더합니다. 출판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분야 확장성 측면에서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도무지 낡지 않는 이야기〉는 대본 속 긴장감이 좋았으며,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구성 방식도 훌륭했습니다. 시간을 넘나들며 밝혀지는 반전의 반전을 통해 진실의 끝을 좇아 페이지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상 총 14편의 작품을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하신 작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수상권에 모시지 못한 작가님들께는 건필과 함께, 다른 좋은 기회를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차후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 운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전에서는 더 다채롭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